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 1월 14일

듣는 마음: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하기



인종평등선교주는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특별선교주일의 하나로, 인종정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태어난 주간의 주일을 인종평등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특별 선교헌금을 드리며, 이 예물은 그가 품었던 “사랑받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ers),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United Methodist Voluntary Services),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Youth Offender Rehabilitation) 등을 후원합니다.

더 좋은 지역사회 개발 주식회사(Better Community Development Inc.)는 리틀락의 테레사 후버 기념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후버 치료 센터는 기독교 신앙으로 설립된 약물 중독 치료 센터로 참가자와 그 가족들에게 약물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종평등선교주를 지키며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지역사회 개발 주식회사의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은 후버 치료 센터를 찾기 전까지 평생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회복했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입원 프로그램을 마친 여성들을 도우면서 재발을 방지하고 회복으로 가는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 기고 작가 캐롤라인 로프틴의 이야기에서 발췌, 테레사 후버 기념교회

인종평등선교주는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특별 헌금을 드리며 지키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주일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가진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합니다. 특별 헌금은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옹호 사업을 후원하며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웹사이트 UMC.org/SSGive 를 통해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후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